

석유화학제품 가격반등 계속된다?

대신경제, NCC 가동중단 잇달아 수급타이트 ... 나프타 수급 악영향

대신경제연구소는 1월26일 석유화학제품 가격 상승전망 등을 반영해 석유화학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지난주 국제 석유화학제품 가격은 기초유분(올레핀)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으로, 특히 올레핀 시장은 잇따른 유럽 및 미국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중단 사고로 수급이 원활치 않아 가격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급차질이 석유화학제품 원재료인 나프타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나프타 가격이 전주대비 0.2% 상승한 톤당 40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상희 애널리스트는 "LG화학의 주력제품인 PVC 가격은 지난주에 약 0.6% 상승한 톤당 855달러를 기록했으며 PVC 가격반등은 중국의 춘절 연휴를 앞둔 수요증가 때문으로 보이나 춘절 이후 봄철 성수기 시작을 앞두고 선취매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LG화학과 한화석유화학에 대해 각각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주가 5만1000원, 1만2000원을 유지했다.

특히, 한화석유화학 목표주가는 중국 춘절 이후 PE 가격 동향을 검토한 이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01/27>